



최근의 기후경향과 양돈

김 우 탁
(기상정보센터)

엘리뇨는 지나가고

최근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상기상 현상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같은 현상은 멈추지 않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한 증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엘리뇨와 라니냐라는 것이다.

지난 겨울, 정확하게는 97년 봄부터 98년 봄까지, 우리는 금세기 최대의 엘리뇨를 경험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겨울은 내내 따뜻하고 겨울답지 않은 많은 비가 내렸고, 봄에도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다.

엘리뇨로 인한 첫 피해는 지난해 8월 중순 백중사리와 태풍 "위니"의 영향으로 서해안에 바닷물이 넘치는 침수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어 11월까지의 엘리뇨에 따른 가뭄이 계속돼 79건의 산불이 발생, 임야 1백43ha를 태우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영동지방에 폭설이 잦아 2백50억 가량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엘리뇨로 인해 입은 피해는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당국은 집계 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도 적지 않았다.

난동으로 겨울 용품이 팔리지 않은데 따른 경제유통의 침체가 컸었고, 생태계 변화에 따른 난조현상(모기떼의 극성 등)은 우리의 생활리듬마저 혼란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엘리뇨는 왜 발생하나?

이제는 우리 귀에도 생소하지 않는 엘리뇨란, 태평양 페루 부근 적도 해역의 바닷물 표면 온도가 주변 바다보다 적게는 2~3°C, 심할때는 8~10°C까지 오르면서 해류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현상을 말한다.

즉 해류가 정상적일 때는 미주에서 호주 방향으로 흐르던 것이 호주에서 미주 방향으로 바뀌어 더운 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다.

엘리뇨는 대개 9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발생하는데 길때는 1년 이상 이어질때도 있다.

엘리뇨는 스페인 말로 "아기예수" 또는 "어린 소년"이라는 뜻인데 이는 엘리뇨가 특히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7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엘리뇨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따뜻한 바닷물을 서쪽으로 밀어내는 무역풍이 불지 않거나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역풍이 약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설명이 없으나, 적도에서 일어나는 열순환 메카니즘이 2~6년을 주기로 변동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무역풍이 정상적으로 불때는 동태평양의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이동해 동남아시아 일때는 고온다습한 본래의 기후를 보이면서 비가 많이 내린다.



올여름의 기후로 보아 돈사는 차양과 통풍에 더욱 신경을 써서 성돈을 더위에서 보호해야겠다.

그러나 엘리뇨가 나타나면 따뜻한 바닷물이 머물러 있는 동태평양 한가운데에 비구름이 형성돼 비가 많이 내리고, 반대로 동남아시아는 비가 적고 가뭄이 나타나게 된다.

이번엔 라니냐가 온다는데

이제 금세기 최대라는 엘리뇨는 떠났다.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또 생기고 있다. 엘리뇨를 뒤따라 라니냐가 오기 때문이다.

라니냐란,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뇨의 반대현상을 가리킨다. 엘리뇨가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달아 오르는(1~10℃ 가량)현상이라면, 라니냐는 거꾸로 같은 지역의 해수온도가 차가워 지는 현상이다.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는 뜻을 가진 라니냐는 적도의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해지면서 차가운 바닷물이 솟아오르는 것이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라니냐는 엘리뇨가 끝나면서 그뒤를 이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98년이 예상되는 라니냐도, 엘리뇨가 물러가면서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얘기로는 98년 가을 이후에 라니냐가 도래할 확률은 반반이라고 한다.

라니냐가 발생한 지난 67년과 73년의 경우,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은 22℃와 1.1℃가 각 낮았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었다. 그런가 하면 라니냐가 발생했던 88년 겨울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2.2℃도나 높았고, 강수량도 123mm가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좁은 햇갈리는 기록이다.

한차원 높은 대책을

그러나 기상청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올 여름은 지나간 엘리뇨의 여파로 더위가 다소 극성스럽겠고, 오는 겨울은 시베리아의 찬 고기압이 흑한과 가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돼지는 성돈의 경우 본질적으로 더위에 약하고 추위에는 강하다.

올여름의 기후로 보아 돈사는 차양과 통풍에 더욱 신경을 써서 성돈을 더위에서 보호해야겠다. 뿐만 아니라 흔히 볼 수 없었던 폭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돈사를 단단하게 짓거나 보강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리고 겨울의 흑한에 대비해서 돈사의 방한 대책도 소홀히 알 수가 없겠다. 특히 어린돼지는 흑한기의 특별대책이 요구된다.

“엘리뇨”나 “라니냐” 아래서는 기상현상이 양극현상(兩極現象)-다시 말해서 비가 올때는 왕창 쏟아지고, 안올때는 가뭄이 계속된다는가, 기온도 전에 없는 고온과 저온의 기록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때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과는 다른 한차원 높은 대책이 요구된다고 해야겠다.

오빠 엘리뇨도 그랬지만, 동생 라니냐(어린 소녀라는 뜻) 또한 얼마나 말광량이 짓을 할는지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 밖에는 없지만, 유비무환은 이 경우에도 절실한 경구가 돼 주는 것 같다. **養豚**